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30.(화) 06:00 < 1.30.(화) 석간 > 배포 2024. 1. 29.(월)

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 7월 미래차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지원, 인력수급, 기술개발·사업화 지원강화
- 향후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애로해소 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되었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www.transform-katech.re.kr)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390)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3-43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